

“개인 발명인에서 중소기업 개발이사로...”

'88년 시작품 제작자 **유재풍** 씨

“성공이라뇨?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여 국내 제일의 발명기업인이 되렵니다.”

지난해 시작품 제작비 지원을 받아 특허 제24097호인 「환편기의 실 감지점 낙하 실 자동 상향장치」를 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양도, 로열티 2%와 개발이사의 영광을 안겨준 유재풍씨는 오늘의 영광은 우리 협회를 통해 지원받은 특허청의 시작품 제작비 지원 덕분이라며 고마워해 했다.

유씨의 발명품은 원사공급 자동시스템으로 '85년 5월26일에 직접 출원하여 '87년 9월1일 등록을 받아 '88년 시작품제작 지원 혜택을 받았다.

발명내용은 낙하한 실을 자동장치를 이용하여 올려주어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유씨가 이 발명을 결심한 것은 12년전이었다. 섬유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이 낙하하는데 큰 불편을 느낀 유씨는 이 발명을 위해 각종 서적을 탐독하는 등 무궁무진 노력했으나 진척이 없자 직장까지

그만 두고 연구에 몰두했다. 유씨의 방은 곧 연구실이였다. 그래도 진척이 없자 아예 깊은 산중에 텐트를 치고 8개월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발명에 몰두하기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85년 유씨는 드디어 목표했던 발명을 해냈다.

유씨가 중소기업 사장을 만난것은 이웃의 소개로였다. (주)정웅 사장은 유씨의 발명품을 선뜻 양수해 주었다.

“(주)정웅의 발전이 곧 저의 발전이지요. 최선을 다해 일할것입니다.”

유씨가 (주)정웅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양수인인 (주)정웅사장의 만족할만한 대우에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주)정웅에 양도되어 빛을 보게된 유씨의 발명품 「환편기의 실 감지점 낙하 실 자동 상향장치」는 금년 가을이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국내 시판은 물론 수출계획까지 마련해놓고 있는데, 판매시장은 무궁무진 넓다고 한다.

이 발명외에도 특허 5건, 실용신안권 1건, 상표권 1건을



보유하고 있는 유씨는 선천적 발명인이었다. 그는 국민학교 시절 이미 고장난 시계와 라디오를 고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타고난 재주가 오늘의 발명인 유재풍을 있게 했다.

“(주)정웅이 정상의 기업으로 성장하면 저는 또 다른 발명을 하여 국내 제일의 발명기업인이 되렵니다.”

하늘같은 청운의 꿈을 펼치는 유씨는 35세의 노총각. 발명에 미쳐있다보니 혼기를 놓쳤다고 하며 이젠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오늘도 새로운 발명을 위해 밤을 세워 연구에 몰두하는 유씨는 우리 협회와 특허청 그리고 (주)정웅이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세계제일의 발명인이 되는것이 아니겠냐며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로 향했다.♣